# 여행·성형외과 문의 줄이어…도심 상인은 "손님 줄겠네" 걱정

#### 광복절 앞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시민들 반응

정부가 광복절을 앞둔 14일을 임시 공 휴일로 지정하면서 직장인·학부모·기업· 관공서 등 반응이 제 각각이다.

전례가 없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주 요 관광지 입장료 면제 등의 '공휴일 기념 선물'이 제공되면서 여행·레저 업계는 발 빠른 특수 누리기에 나서는 반면, 공휴일 과 상관없이 일해야 하는 탓에 SNS(소셜 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적

공무원들은 갑자기 생긴 공휴일을 반기 면서도 애초 예정됐던 민원인 상대 업무

등을 평일로 미루거나 조정하느라 부산한 하루를 보냈다.

◇"휴양림 무료 예약 가능한가요" 문의 빗발=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하면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관리하 는 전국의 휴양림 41곳에 대한 입장료 면 제 방침을 밝히고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 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전 례없는' 조치까지 이뤄져 당장, 광주·전남 을 비롯, 전국 주요 휴양림에 대한 숙박.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전남지역 내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장 성 방장산휴양림(객실 20개)·순천 낙안민

휴양림 숙박·예약 전화 폭주 공기관·법원 일정 조정 분주

### 출근 직장인 아이맡길 곳 고심 전통시장·동네상가는 한숨만

속휴양림(객실 15개, 야영시설 17개)ㆍ장흥 천관산(객실 11개, 야영시설 20개) 등 3곳 은 오는 14~16일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14~15일 숙박 예약은 이미 완료된 상태

이외 갑작스런 공휴일이 생기면서 성형

외과와 피부과 등을 예약하는 환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A성형외과 상담실 장은 "임시공휴일이 확정된 4일 오전부터 피부 관리를 받으려는 직장인들의 예약 문의가 하루 동안 10통 가량 걸려왔다"고 말했다.

◇공무원들, 쉬니까 좋긴 한데…=공무 원들은 갑자기 생긴 공휴일을 반기면서도 민원인 접촉 부서의 경우 애초 예정됐던 민원인 상담 등을 미루거나 조정하는 등 부산한 하루를 보냈다.

법원 등은 14일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바뀐 일정을 재판 당사자 및 증 인 등에게 통보하는 등 절차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5개 자치구도 갑작스런 공휴일 지정에 따른 당직 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으 로 바쁘게 움직였다. 고등학교 등의 경우 정해진 수업 일수(192일)를 맞추기 위해 교무회의를 열고 겨울방학 개학일을 앞당 기거나 방과 후 수업시간을 하루 1시간씩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아이 맡길 데 없는데…", "우리 직장 은 안 쉬는데"=임시공휴일과 상관없이 일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어린이집이 쉬면 서 아이를 돌봐줄 데를 찾느라 비상이 걸

5살짜리 자녀를 둔 김모(여·29·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씨는 "14일 어린이집이 쉰 다고 하지만 직장이 휴가를 낼 상황이 못

돼 난감하다"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은 쉬지만 기 업체의 경우 자율적 동참을 밝히면서 영세 소규모 직장인들의 경우 공휴일에도 근무 해야 한다며 박탈감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 다.

◇가뜩이나 손님 없는데…=정부의 임 시 공휴일 지정으로 상당수 시민들이 도심 을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동네 식당·마트 주인들은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 한숨을 내쉬고 있다.

광주대인시장에서 홍어를 파는 부영상 회 백정자(여·54)씨는 "시장은 공휴일에 도 장사를 쉬지 않지만 황금 연휴에 누가 시장을 찾겠냐"고 반문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아기에겐 모유가 최고랍니다"

대상으로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속지 마세요 "노인 대상 사기범죄 판친다

#### 순천서 아들 행세…함평선 장애인 등록 미끼 돈 뜯어 경찰, 3대 악성 사기 사건 규정 지속적 단속 펴기로

시골 마을에 홀로 거주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유독 높은데다, 올 들어 서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수백 건 발생하면서 경찰도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4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 어 지난 7월 말 현재 발생한 60세 이상 노 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은 광주 332 건, 전남 362건 등 694건에 달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359건)에 비해 사 건이 다소 늘어났다.

경찰은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 끊이질 않는데 따라 '전화금융 사기', '중소 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

행'과 함께 '노인 대상 사기 범죄'를 '3대 악성 사기 사건'으로 규정, 지속적인 단속 에 나섰다.

순천경찰은 4일 아들 행세를 하며 전화 를 걸어 노인을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 기·간음목적 유인)등으로 김모(6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새벽 5시께 A(여·71)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행세를 하며 "몸이 많이 아프다. 내가 보내는 사 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병이 낫는다"고 속 인 뒤 A씨로부터 15만원을 챙기는 등 4차 레에 걸쳐 295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보성경찰도 비슷한 피해 내용이 접수돼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밝혀 졌다. 김씨는 새벽이나 늦은 밤 공중전화 를 이용해 전화한 뒤 울먹이거나 쫓기는 목소리로 말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경찰은

11, 150, 800 일괄매각, 목록2동

11, 150,800 지취득자격증명요

설명했다.

사건번호

1985

4137

4427

2015EJ

함평경찰도 노인들에게 장애인·기초생 활수급자로 등록해 주겠다고 접근,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0)씨를 구속했 다. 김씨는 노인 7명에게 우선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5만~25만원씩 총 107만원을 받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10년께 노인 상대 사기로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출소 후 다시 판단 력이 흐린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

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단체나 복지단체 는 복지·장애인 연금 등을 받는 대가로 절 대로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마을회관이 나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돈을 요구하 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긴박 한 상황이라도 솔깃한 제안을 해오면 의심 해보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스마트폰 싸게 판다" 글 올려 7200만원 가로챈 2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4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최신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

소재지 및 연작[리]

동구 지산됨 95-2 655m

당양군 무정면 봄안긴 254 1425m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161-16 1309#

영장을 신청했다.

용도

이씨는 지난 1월26일부터 최근까지 특 정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 트폰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 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A(28)씨에 게 6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191명 으로부터 7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단위:원]

209.600.000

345.312.000

19.950.000 5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9,600,000 제시외건물제외

19.9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8.274,400 농지취득자격증명

## 도박 판판이 지는 이유 봤더니

#### 광주서 목카드·특수렌즈 등 준비 '사기 포커' 도로공사 전·현직원 등 억대 도박 9명 입건

나름 포커에 자신있다는 A씨는 손 기술이 좋아 이른바 '아마추어 타짜' 라 불렸지만 공기업 직원들과 포커를 하는 날에는 '완패'(完敗)했다. 평범한 공기업 과장인 B(51)씨와 몇 차례 어 울리면서 잃은 돈만 2000만원이 넘었 다. 전·현 도로공사 직원 등이 함께 게 임을 했지만 유독 B씨가 이기는 횟수 가 많았다. "어, 계속 질 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

지난 1월 22일 자정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C모텔에서 열린 도박판도 비 슷했다.

다 이길 것 같았지만 B과장에게 연 거푸 졌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차리 고 미리 준비해뒀던 LED 라이트를 꺼내들고 화장실로 가 어둠 속에서 카 드에 갖다댔다. 트럼프 카드 뒷면에 묻어있는 형광물질이 고스란히 드러 났다. 일명 '목카드'였다.

A씨는 화장실을 뛰쳐 나와 카드판 을 뒤엎으며 B 과장이 카드 뒷면에 그 려진 형광물질 내용이 보여 상대방의 패를 읽을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착용 한 사실도 밝혀냈다.

B 과장은 '사기도박'으로 경찰에 신 고하겠다는 A씨 등에게 잃은 돈을 모 두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현장 을 마무리했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 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B 과장 등 한 국도로공사 전·현직 직원 3명, 이들의 지인 6명 등 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광주의 모텔 에서 3억3만원의 판돈을 걸고 52차례 속칭 '세븐 포커' 카드 도박을 한 혐의 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도박판에서 수천만원 을 잃게되자 특수렌즈와 목카드를 구 입,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사기도박을 벌여 7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고흥 오천저수지 아래 수로에서 20대 숨진 채 발견

4일 오후 2시50분께 고흥군 금산면 오 천리 오천저수지 둑 아래 수로에서 선모 (23·고흥군 도양읍)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선씨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 30여 분만인 오후 4 시 20분께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

였다.

경찰은 선씨가 친구 4명과 함께 출입 이 금지(상수도 관리구역)된 저수지 인 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3m 깊이의 물 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 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 동창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친구 폭로에 음주운전도 들통



○…초등학교 동창 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이 친구의 폭로 때문에 음주운전 사 실까지 들통.

○…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조모 (47)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M식당 앞길에서 동창인 김모 (48)씨가 "모임에서 여자 동창을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말한 것에 격분, 흉기를 휘둘러 김씨의 귀를 다치게 한 혐의.

○…조씨는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 올농도 0.144%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김씨와의 약속 장소를 찾았는데, 피해자 김씨는 "조씨가 음주운전도 했 다"고 경찰에 말하는 바람에 도로교통 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30344

사건번호		매 각 불 건	감정평가역		
	불건 번호		8 5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이파트	]	•			
2015EF≥ 6522	t	광산구 신청동 855-5 중혼아파트 101음 14 총 1402호 59.940㎡	132,000,000		
단독주	택.	다가구주택]			
2015EL≅ 6348	2	남구 주월등 401-10 195배[현황대지] 남구 서문대로 785-10 1층90.54배 2층59.9 4배 부속건돼 1.62배[참고] 0.81배[변소, 현황열심] 제시외 참고 등 25.3배	전 단독주택	137,815,440 g 137,815,440 c	[골매각,제시외 선물포함
[대지/일	10 5	/전답]			
2014FF24		로그 월날도 158-3 10M8분[하환인이]	Di .	168 A63 DOOLS	1 20 TH 24

#### 23506 순군동면문능리234 16796㎡[현황감종지] 소 252 2397㎡[현황감종지] 소 261 4425㎡[현황감종지] 392,697,000 일글매각 농지취 392,697,000 독자격증명묘 2014단경 28174

주시 문명면 대도리 산111 893배[현황얇]임야

동소 483 1240㎡ 현황족전및임야

- 남구 백운동 635-6 392.4m 6348 345,312,000 泰특별따각조건 ① 농지합의 농지학의자격충분을 작용됐어 하는 최고가와수산고한이 바닥걸하기당까지 농지한테자격등명을 작용하지 아니랑으로의 따라서 최 하기 뭘 돼야는 해수신청난용교육 반환하지 않고 이를 때당시 마리다고에 선표한다. 혈박통일 변경으로 신한 현상학구가 필요한 경우 회수 반이 이를 부터할수 있음. 강 공유자가 민안집에면 제1차주에 있한 우선마수신고를 한 경우 그 예수신고 후 최초로 원했되는 해국가일에 예수보통점의 미난단로 싫弃되 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회담 부동산의 애작가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래서 답해 가입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권무 항치하리가역을 굴임자우선 하수신고색으로 보다. 매각기압 : 2015 8 20 [배] 10:00 매각검정기밀 : 2015 8 27 [배] 16:00 매각정소 : 공주제품받은 요함(6점
- ① 입황법원에 비지된 기밀입합되어 사건반큼, 입합자의 전염, 죽소, 입합가격, 보증감적 등을 기재하고 날만하여 보증감을 함께 입합성학이 보이 입합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마수선됨의 방법으로는 회지의는가격의 (발(ND)에보니에 설팅하는 경험거군 발행의 자기업수로 또는 변경 될 준비하거나 지금보증하락지역할 제공한 문서(발명 보용서)를 준비하여 합니다. ② 2번 이상이 공동으로 합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합합지체목에 작가의 지본된 방송에게 표시하여에 합니다.
- 또 입항병투의 부입이 환경되면 끝내로 계술을 일시하여 되고의 거격으로 입향한 시원을 되고기하수선고인으로 현하고, 되고의 가격으로 입 활한 사람이 2일 이성당 경우에는 그 다음지들만을 성대로 추가다음을 실시합니다. 6 최고가배수신고인과 차는역비수신고만의 제약한 다른 축수산원인들의 배수산원성등라면 법활활치가 중골되는 역사 만원합니다.

6. 매각하기 및 대급납부

D REES BREE BRE		<b>国党和为 和京都 和春州公司 宣告的</b> 证	2、细可有对音器似 考查程度 建设和自对管理
		매각하기말하여 확충된 날로부터 1개월	
			가들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비수면이
merchin at Wilsoln's in	WH DAGS CHRASES HI	효하며, 마음서 재매리는 설시하지 아	CLEE CALLS

① 매작다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위전이 때수인에게 이윤되어, 작은 지당한, 기업뒤들은 소문에 관계합이 등학적으로 소형합니 다. 소유전이전용기 및 자당군이나 가입부터 발소용기를 숙매시는 용력세와 지방교육세를 남부한 후 등록세양수용화당사 및 음록세양수용표 지서를 유무하고, 국가주역제공권발반으로 기재한 선물시를 입관에 응용하면 함당이 약 원기를 촉약하여 준나다.

8. 주의사항 ① 행적된 주택 또는 성가관들에 최선순적의 제당은 등이 설명한 남동보다 먼저 주인등록한입산교를 다지고 가주하고 있는 비유인이나. 사업

자용복선원을 마친 입자원이 있을 행하는 그 임치보충관을 제수인이 단수하여야 하는 공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일반만물의 열정에 제공하기 위한다 양작가입 /주일 전략단 양각물건 양보사, 원활조사보기서 및 물가서의 사용 등을 우린병원 반사유행!

선생[교육 비치하여 발함에 제공하고 합으므로 마라 필요한 청산를 얻으선 후 입원여부를 근단하시기 바랍니다. ① 취용마라조건의 나용은 과학달건대에서와 말함을 통하여 취만할 수 있습니다. ④ 단말법적에 나오성 해매는 입원되의 가는 및 법험성공라의 반응에 필요하였다.신변증과 도망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단순의 대리반으로 합복하게고 하는 사람은 민급증명을 통약한 위암점을 만드시 입찰표와 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소위권이전에 농지회트자격증값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기태수산고민으로 경험된 후 매격경험기회까지 농지회되자라증업된 사용

2 수 될다면 이후된 선택으로 연합소 이용장 다음으로 이랑음투다구하는 또 전혀의 원을 보안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있다면 다음이 되었다. 합니다. - 공고왕 물건들에 동작가장 건데 경쟁선들이 취하되거나 침향이 취소 - 경화된 경우, 또는 동작가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병도의 공고 함비

设备信任 网络新山口 ① 신문에 응고되는 물건된 함츠의 대학기업에 동안되는 물건이다. 속했사건에 대해서는 물도로 신문표기를 하지 않았던도 우리법된 계시된 의 취고나 발명에 따라면 의학물건에서서 응물 참조하지만 바랍니다 제작하고를 납부하기 전되지 화우하기 최무를 변제하면 배작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태에는 매수선들인이 제품한 제수선원보충을 반

· 다입은 출회에자에서 공고대용없다 영화 가는한 전상는 법률상 유공하도록 원하여자 입지 이나는 것을 국인한테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중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나몸이 있더라도 이를 이용로 여러움하기 선확이나 한고, 대급검독신환이나 손형태상의 한구를 할 필요요요. 권성있는 결건에 권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마직기일의 공고나 비지원 여러결건에서 福율 착점 목만하신 🗢 함

2015. 8. 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